

다해·제2308호

주님 세례 축일

2025년 1월 12일



티치아노 <그리스도의 세례>
1512년경, 패널에 오일,
카피톨리니 박물관, 이탈리아

목 차

02 말씀의 향기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이사 42,1)

03 평신도 단상

전광판 후보 시대(?)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¹

05 열린 마당

천사가 따로 있나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이사 42,1-4.6-7 <또는 40,1-5.9-11>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였다.



김찬우 가브리엘 신부
포천 본당 보좌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이사 42,1)



신 학생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한껏 꾸미고 설레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긴장으로 경직되기도 하고, 기쁨에 넘쳐 웃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쉽게도 태어난 그해에 바로 유아 세례를 받은 저로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의 가장 큰 은총이 흔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갖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세례의 충만함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할 때면 늘 예비 신자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받아도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에 희망을 걸며, 기적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변한다거나 아픈 것이 낫는 것과 같은 기대를 하거나 혹은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복 신앙 자체는 천주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자체는 사람의 당연한 욕구이기에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기대했다가 좌절된다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우리의 영적 유익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마침이 아닌 시작이며, 삶의 종점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비자 교리 때마다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서는 주님 세례 축일인 오늘을 성탄 시기의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으며, 오늘이 넘어가고 내일이 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연중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줍니다. 온전한 하느님이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어, 당신 백성 가운데 일어난 회개 운동에 동참하시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이 일을 계기로 신비로운 계시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두 독서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르시는 예언자이자, 하느님의 아드님이며, 구약성경에 예고된 메시아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후 이어지는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받은 소명처럼 이 계시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선교가, 곧 공생황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미 받은 은총, 세례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미 시작된 이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용기와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명을 식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광판 후보 시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모처에 갔다가 그 지역 성당의 아침 미사에 참례했다. 성당 입구에 스탠드형 전광판이 있었고 큰 활자로 후보가 그대로 떠 있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흥미 있게 살펴보았다. 큰 활자에다가 내부에서 전등불이 비치니 가독성은 뛰어났다. 그 옆에는 종이 후보도 있어서 인쇄된 후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대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보를 집에 가져가 소장하는 신자는 드물고, 어쩌다 가져갔다가도 언젠가는 폐지함에 버려지는 후보 아닌가? 한번 읽고 버리는 종이 후보를 전광판으로 대체하면 원본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 필요한 기간만큼 보관도, 열람도 가능할 것이고 대신 종이를 안 써도 되니 그야말로 ‘친환경’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일찍 성당에 와서 후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공지 사항은 물론 읽을거리를 찾아 읽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읽어야 할 것은 핸드폰으로 찍어 두고두고 보면 될 것 같았다. 좁은 입구에 세워진 전광판 주위에 많은 신자가 둘러서서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문제일 수 있겠으나 한 주간 내내 전광판에 띄워 놓을 수 있는 장점도 고려하면 한번 보고 마는 종이 후보에 비해 생명력(?)은 더 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후보 파일을 신자들의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면 종이 후보의 인쇄와 배포 과정도 생략되니 사무적으로도 생력적(省力的)일 것 같았다.

이제 후보까지 기기로 대체하고 성가대도 기기로 대체되는 상상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신앙생활 환경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환경의 변화에 쉽게 순응하지 못하는 고난도의 변화가 아니고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 교회 내의 변화는 점차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한 교회의 사무, 토론 및 회의, 청소 및 시설 보수·유지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도문, 성가, 강론 등 개인의 신앙생활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장·노년층 신자도 적지 않으니, 차세대에서 기기 의존도는 점점 더 다변화되고 심화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단체의 작은 피정에서 지도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거룩한 소멸’을 말씀하셨다. ‘다 없어지고 새 판이 짜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했다. 종이 후보도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부님 말씀처럼 없어지더라도 신자들의 영성과 신심의 본질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소멸 효과’는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시니 가능하지 않겠는가? 신자들이 진리를 지키고 증거하려는 성인들의 후예답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어떠한 외적 변화도 본말을 전도(顛倒)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육류와 유제품 섭취 줄이고 채식 늘리기

프라 안젤리코 <모든 성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¹

모든 성인의 통공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지난해 12월 24일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며 희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그리고 여러 차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에게 대리 기도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잠벌을 모두 없애준다는 점 때문에 연옥 영혼에게는 사실상 천국행 티켓처럼 보입니다. 물론 구원은 언제나 항상 인간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에 대사 역시도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는 행위입니다. 전대사와 관련하여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 중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입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과 밀접히 연결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몸의 한곳이 아프면 온몸에 그 고통이 전해지고, 우리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모든 신자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각자의 선은 모두에게 전달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47항)라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선의 공유에서도 **그리스도의 모든 선이 지체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은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것들의 공유**’가 모든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48항).

거룩한 것들의 공유. 거룩한 것들, 곧 영적 자산의 공유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공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한 사도들의 신앙은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교회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 역시도 그 신앙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달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49항). 두 번째는 **성사의 공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해 주는 성사들은 우리를 하느님께 결합시켜 줍니다. 세례 성사는 이와 더불어 모두를 한 형제자매로 서로 묶어주며 특히 친교의 성사인 성체성사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결합시켜 하느님과,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완성시켜 줍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50항). 이와 함께 교회 내에서 교회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들인 **은사의 공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 소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유**가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51~953항).

거룩한 사람들 사이의 친교. 교회는 곧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상 교회와 평화의 과정 중에 있는 연옥 영혼들의 교회, 하느님 나라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54항). 거룩한 것들의 공유와 친교는 지상교회를 넘어 천상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함께 이루어 집니다. 특히 하느님과 보다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성인들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 줍니다. **성인들과의 친교** 안에서 **그들의 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친교, 교회 공동체의 일치**는 더욱 강화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57항). 또한 우리는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히 간직해 왔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도움이 필요한 연옥 영혼들이라면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천국에 있는 영혼이라면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더욱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58항).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391~396쪽, 946~962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천사가 따로 있나

글/ 우두 본당 · 송순자 마리아

이른 시간 루르드 성당으로 가다가 아침에 출근을 하듯이 수도자처럼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여 뒤를 따라가 보았다. 그리고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은 수녀들이 아니라 봉사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루르드 성당은 기적이 일어나는 성당이라 하여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온다. 각지에서 오는 병자들을 위해서 수도원에서 숙소와 먹거리, 탈것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중에는 누워서 성당 광장으로 가는 환자들도 있는데 봉사자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참으로 아름답게, 가치 있게 노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거룩해 보이고 순수해 보였다. 무엇보다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자비와 사랑이 느껴졌다.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해맑고 순수한 영혼들이었다. 나는 봉사자들이 들어가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그만두고 성당으로 가서 조배를 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육체적 질병을 안고 이곳으로 온다. 기적의 물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고 먼 곳까지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나는 물을 한국까지 가져갈 자신이 없어서 마시기만 했다. 이곳에도 봉사자들이 있었다. 해맑게 웃는 표정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야말로 천사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봉사자가 떠준 물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눈물이 울컥 나올 뻔하였다. 감정이 복받쳐 기도문을 읽지 못했다.

한낮인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장애인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광장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하였다. 어쩔 봉사자들이나 장애인들도 하나같이 평화롭다. 이곳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다들 봉사자들과 웃고 떠들며 소통하고 있었다. 무거운 환자를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의 평화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했다.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머무는 동안은 분명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것 같았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중년 이상의 부인들이 봉사 단체복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얼굴이 우아하였다. 아마도 퇴직하고 남은 생을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이곳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묻고 싶었다. 말이 통한다면.

우리는 물질만능에 사로잡혀 너도나도 물질을 따라가고 있다. 농촌에서도 그러한 것을 느낀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가 서로 시샘하고 잠시도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일에 묻혀 산다. 마치 일중독 같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를 사랑하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수많은 봉사 천사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견진성사

서석 본당: 1. 12.(주일) 10:30

사제평의회 · 참사회

1. 14.(화)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 17.(금) 안토니오

이창섭 신부

교구 직원 채용 공고

근무지: 춘천교구 예수 성심 영성원

모집인원: 약간 명

업무내용: 주방, 청소 및 빨래, 시설 관리

제출서류: 이력서(경력사항 상세 기재), 본

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관련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

함),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개별통보)

제출기한: 2. 28.(금)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춘천시 공지로 300 천주교 춘천

교구청 교구 법인 담당(우편번호 24338)

☎ 033-240-6022, 6029 문의

저희 가톨릭춘천신협은

조합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2024년 춘천교구, 본당 및 관련시설,

그리고 교우들의 출산축하금 등으로

약 7천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청소년 견진 캠프·미사

1. 12.(주일) 14시, 죽림동 주교좌 성당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전국협의회 동계연수

1. 15.(수)~17.(금) 농은수련원

청년 찬양 성시간 PEACE

1. 17.(금) 20시, 한살강당(19:30 현장접수 시작)

1월 예비 신학생 모임

1. 26.(주일) 14시, 춘천·남춘천: 퇴계 성당

중부: 흥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교동 성당

부활성당 설 합동 위령 미사 안내

1. 29.(수) 9시, 11시

27.(월) 정상 운영 합니다.

☎ 033-251-7073 문의

성령새신 금요기도회

1. 17.(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이상욱 엘리야(서울대교구)

미사: 19:30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1. 14.(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1. 18.(토) 10~13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 010-3669-2076

좋은 이웃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월~금(10~17시) ☎ 033-253-6006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1. 14.(화) 14시, 사회복지회 강당

여성 제88차 꾸르실로

1. 16.(목)~19.(주일) 가톨릭회관

1월 카나 혼인 강좌

1. 25.(토) 18:30, 애막골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가톨릭 이주민 센터 미사 안내

베트남어 미사(Vietnamese Mass): 8:30(Sun)

영어 미사(English Mass): 15:00(Sun)

장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 3길 32

'여정' 예언서 통독피정

2. 1.(토) 10시~2.(주일) 15시, 가톨릭회관

참가비: 7만원 / 마감: 1. 15.(수) / 대상: 24

년 '여정' 예언서 강의를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 033-240-6020

떼제기도(Taizé)

매주 (화) 20:30, 교구청 3층 경당

누구나 참여 가능 / 찬양, 말씀, 침묵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

☎ 010-5540-5551

춘천 성심병원 원목실

위치: 본관 10층

입원 시 원목실로 연락 주세요.

☎ 033-240-5200, 010-4164-4610

본 당 알 림

1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1. 20.(월) 13~16시, 임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 18.(토) 14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도,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 이은경 테오도라

인 준 시 설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1. 20.(월) 18시까지/면접: 1. 22.(수)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꽃동네 은총의집 직원 모집
생활지도원 1명, 언어 재활사 1명, 교대인력
생활지도원 1명 ☎ 031-589-0196 문의

성골롬반의집 직원 및 입소어르신 모집
분야: 요양보호사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
서, 자격증사본(해당시) /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hanmail.net
입소어르신모집: 노인장기요양시설입소1~5등급
☎ 033-262-0935~6 팩스 262-0937

희망의 일터-회사 서류 봉투 제작
편지 봉투, 각대 봉투, 카드 봉투 인쇄 제작하
입니다.(검정, 군청 단색) 춘천시 영서로 1925-23
☎ 033-261-0199 문의

강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마리아의집)
예기치 않은 임신/출산, 고민하지 마시고 1308에
서 상담하세요. (혼인여부, 나이, 소득수준 관계없
음/비밀상담지원)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
만의 위기 임산부 / 24시간 전화상담 1308
☎ 033-263-1308 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강원

갈바리의원(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말기암 환자분들을 위해 무료 간병인 서비스
☎ 033-644-4992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직원 모집
간호사, 간호조무사
☎ 031-589-0330 문의

일 반 알 림

사이버성경학교 '순례자희년'수강자 모집
대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이
신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365일 신청
☎ 031-360-7635, 010-7470-7966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 (38만원), 전국 2박 3일 (30만원)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20만원)
일본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2. 14.(금)~22.(토)
3. 14.(금)~22.(토)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때: 3~11월(주일) 16~18시 (12만원x3회)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 010-4598-691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지원 및 기타상담 지원
개인, 부부, 가족 갈등 상담 (9~18시)
☎ 033-257-4687 www.cchanlife.com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
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033-1366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 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1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노비타스음악중고등학교 행정실 사무직원 모집
접수: 1. 17.(화)까지
담당업무: 후원회 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보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
숙식무료제공/novitas.school@hanmail.net
☎ 070-4129-7040 문의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3. 24.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500만원)
4. 23. 튀리키에 그리스 12일(525만원)
5. 3. 동유럽 발칸 메추고리에 15일(575만원)
5. 20.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1. 31. 마감
☎ 02-944-0819~23, 010-5584-8945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 강좌/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영성과 철학상담: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9:30~22:00, 13주
과정 (금요일반은 20~30대 청년대상)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구름다리 주유소

후평동 금호 빌리지 옆
춘천 전지역 신속배달(인접지역도
가능) / 난방등유, 경유, 면세유
☎ 010-8945-1462
엄재철 미카엘 · 지은희 마리아콜베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 · 전정구 베드로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후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 · 이장 · 별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 · 박순옥 임마누엘라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506-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 · 홍승후 점마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
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대건 건설·조경·중기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 · 택지 · 조경 공사 · 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안드레아 · 최순화 가브리엘라